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 전시 전경

‘개 위한 전시’ 열린다 전공에 문 연 국립현대미술관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면서 개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미술관은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MMCA)의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전은 개가 주 인공인 전시다.

철저히 인간 중심 공간이었던 미술관이 개와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이 됐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안내견을 제외한 개 출입이 허용된 것은 처음이다.

작가13팀의 설치, 조각, 애니메이션 등 작품 20점이 전시된다. 파란색과 노란색이 많이 눈에 띈다. 적록색맹인 개가 바라보는 세상이 노란색과 파란색 중심이기 때문이다.

풀밭에 놓인 김용환의 ‘알아둬, 나는 크고 위험하지 않아’는 굴러가고, 회전하고,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는 다양한 형태의 놀이기구다. 도그 어질리티(장애물 경주)에 사용되는 기구와 비슷한 조각들을 설치한 조각스카웃의 ‘개의 꿈’도 미술관 마당에서 개들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실내도 개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건축가 김정재의 ‘가까운 미래, 남의 거실 이용방법’은 개를 위한 쿠션과 테이블을 설치해 인간의 거실을 재해석했다. 조경가 유승종의 ‘모두를 위한 숲’은 자연을 과감하게 전시실로 가져왔다. 바닥에는 나무껍질 등이 깔렸고, 푸른 잎 식물도 놓였다. 개가 시각보다는 후각 등에 예민하다는 점을

고려해 숲의 냄새와 물기 등도 느끼도록 했다.

개들만 호강시키는 전시는 아니다. 관람객들에게도 현대사회에서 반려의 의미, 우리 사회에서의 타자들에 대한 태도, 공적 공간에 대한 개념 등의 질문을 던진다.

전염병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면역혈청을 싣고 밤낮으로 썰매를 끈 개들의 형상을, 애견 사료를 재료로 만든 정연두의 ‘토고와 발토-인류를 구한 영웅견 군상’,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머리에 고정된 카메라가 동시에 찍은 장면들을 보여주는 한느 닐센·비르기트 온센의 ‘보이지 않는 산책’ 등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여러 작품이 있다.

반려동물로 개를 키우는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줄 전시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 관람은 유동적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는 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성용희 학예연구사의 전시설명, 참여 작가 인터뷰, 작가들의 개가 직접 전시장을 방문한 모습 등을 볼 수 있다.

전시일정(장소) 10월 25일까지(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관람료 사전 예약 기간 중 무료
☎ 02-3701-9500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각(死角)

누구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없다. 다른 각도에서 봐야 보이는 모습도 있고, 아무리 보려 해도 보이지 않는 대상도 있다. 같은 것도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 저마다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기억한다. 자신이 본 것이 틀림없다고 믿지만 불완전하다.

이진주 개인전 ‘사각 死角(The Unperceived)’은 이처럼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사각’을 시각적으로 재현했다. 전시장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거대한 ‘A’자 형태로 작품이 설치됐다. 일반적으로 회화 작품은 갤러리 벽면에 전시되지만, 이진주는 각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없도록 중앙에 구조물을 세웠다. 동양화법으로 그린 14m 대형 설치 회화로, 사실적인 풍경 묘사가 아니라 작가의 감정과 의식을 바탕으로 사건과 상황을 그렸다. 각 면 작품 분위기도 전혀 다르다. 한 면은 흰 벽과 아이들, 식물과 조명, 부처와 십자가 등 삶과 생명에 관련된 장면들이 이어진다.

반대 면은 눈에 빠진 듯 홀탕물처럼 진한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 끈에 위태롭게 매달려 나부끼는 흰 천 등으로 혼란스럽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혼돈과 불확실성을 은유하는듯하다. A자의 짧은 변 바깥쪽에서는 아이를 목발 태운 여성이 얇은 자세로 명상하는 듯한 장면을 마주하게 된다. 각 면의 작품을 완전한 형태로 동시에 보기는 불가능하다. A의 꼭짓점에서 양면을 볼 수 있지만 왜곡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A자가 그리는 삼각형 내부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다. 같은 높이에서는 작품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모르고 지나치는 관람객도 있을법하다. 이 또한 전시 주제인 ‘사각’과 연결된다.



사각 死角 The Unperceived, 2020, Korean color and acrylic on linen, 122x488cm, 122x488cm, 122x244cm, 122x220cm © 2020 Jinju Lee

전시일정(장소) 내년 2월 14일까지(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
관람료 성인 1만5천원, 청소년 9천원, 어린이 6천원
☎ 02-736-5700



A Pot Full of Peace Spells, 2018, embroidered painting, 275x316cm

인도네시아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전시장 벽에 걸린 가로 3m가 넘는 대형 자수 작품에서 인도네시아 전통의 이국적 정서가 물씬 풍긴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정도로 역사와 예술성을 인정받는 인도네시아 전통 직물 염색법 바틱과 자수 등 지역적 기법을 활용했다.

인도네시아 미술가 에코 누그로호(43)가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놓인 인도네시아 작은 마을 장인들과 협업해 제작한 ‘자수 회화’ 작품이다. 개인전 ‘로스트 인 패러디(Lost in Parody)’는 전통 기법에 팝아트나 만화적 요소를 접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인도네시아의 신화와 우화를 바탕으로 한 전통 인형극 와양도 작업에 영향을 미쳤다. 지역 사회와 함께 한 자수 회화는 전통과 연결한 작가의 독창적 작업이면서 첨단 기술에 밀려 설 자리를 잃은 수공업자들의 가치를 되찾으려는 노력이다.

전통적 요소를 더한 20여점의 신작은 현대 사회의 정치·사회적 문제를 풍자와 모방으로 비판한다. 형형색색 화려한 색채가 펼쳐지는 배경은 자연, 쓰레기 더미 등 여러 공간을 상징한다. 그 속에 숨은 듯 파묻힌 인물들은 대부분 가면 등으로 얼굴을 가려 눈만 보인다. 한 몸에 얼굴이 여럿 달렸고, 눈들은 눈치 보듯 각각 다른 곳을 살핀다. 작가는 민주주의와 평등, 평화의 이면에 숨은 폭력과 차별, 혼란을

이야기한다. 겉으로는 자유롭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모든 이에게 그렇지 못한 현실을 드러낸다. 늘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끊임없이 전쟁과 갈등이 벌어지는 현실에 대한 패러디다. 각 작품 한쪽에 자리 잡은 해나 달은 그림에도 진정한 민주주의, 사랑과 평화를 바라는 작가의 희망이다.

전시일정(장소) 11월 14일까지(아라리오갤러리)
관람료 무료
☎ 02-541-5701



그는 어디로 왜 사라진 걸까... 영화 '어디갔어, 버나뎃'

영화 '어디갔어, 버나뎃'은 제목이 일종의 스포일러다. 과거 건축계의 아이콘, 현재는 사회성 '제로'의 이웃인 버나뎃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영화는 첫 장면에서 버나뎃의 행방에 대한 답을 직접적으로 준다. 그리고 관객들에게 케이트 블란쳇의 연기와 '비포' 시리즈와 '보이 후드'(2004)를 만든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연출로 그가 사라진 이유를 설명한다.

최연소 맥아더상 수상에 빛나는 천재 건축가였으나 20년 전부터 창작 활동을 접은 채 남편 엘진(빌리 크루덱), 딸 비(엠마 넬슨)와 함께 사는 버나뎃(케이트 블란쳇 분)은 이웃들 사이에서 별종으로 통한다.

이웃들과 떨어져 조용히 지내고 싶은 버나뎃의 심기를 사사건건 간섭하는 옆집의 이웃 오드리(크리스틴 위그)와 버나뎃의 일거수 일투족을 일러바치는 남편의 비서 수린(조이 차오)이 건드리고, 버나뎃의 까칠함은 폭발한다. 그런 그를 도와주는 것은 온라인 비서 만줄라 뿐이다.

소중하고 친구 같은 딸의 소원인 가족 여행을 준비하던 버나뎃은 자신이 러시아 범죄 조직의 국제 범죄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일박에 모르던 남편이 버나뎃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몰아붙이자 버나뎃은 갑자기 사라져버린다.

영화는 버나뎃이 왜 창작을 그만두고 까칠한 이웃이 되어버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차곡차곡 쌓아간다. 버나뎃의 과거 트라우마와 상처, 예술가로서의 좌절이 현재의 버나뎃을 통해 그대로 느껴진다.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버나뎃의 심리를

이해하다 보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블랙베리 덩굴처럼 버나뎃의 영역을 스멀스멀 침범하는 자들이 원망스러워지기도 한다.

까칠하면서도 애잔하고 때론 귀여운 버나뎃은 케이트 블란쳇을 만나 실제로 있을법한 사람으로 탄생했다. 블란쳇은 예술가로서의 예민함, 엄마의 모성애, 가족에 대한 사랑 등 수많은 감정을 복합적으로 표현해내며 입체적인 인물을 만들어냈다.

극 중 마치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만 것 같은 버나뎃 가족의 집이 인상적이다. 소년원을 개조해 만든 것으로 설정된 이 집에서 버나뎃과 남편의 침실과 거실 등은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반면 계단 공간 등은 과거의 모습 그대로 방치돼 비가 오면 물이 샌다. 스크린에 끊임없이 집의 모습이 비춰지지만 한 번에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기도 하다.

이 집은 버나뎃이라는 인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읽힌다. 한 가지 모습이 아닌 여러 가지 모습이 합쳐진 복잡한 인물인 버나뎃과 그의 집은 분명 닮아있다. 이 집은 실제로는 1천800년대에 지어진 피츠버그에 있는 저택이다.

마리아 셴플이 쓴 동명의 소설이 원작이다. 서간체로 써진 소설을 영화로 각색하는 데에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은 꽤 공을 들였다고 한다.

감독 리처드 링클레이터
출연 케이트 블란쳇, 빌리 크루덱
등급 12세 관람가
개봉 10월 8일

검객

배우 장혁을 내세운 조선 시대 배경 액션 영화다. 조선 광해군 폐위 후, 호위무사였던 태율은 스스로 자취를 감춘다. 시간이 흐르고 청나라의 수탈에 조선 백성들이 고통받던 어느 날, 태율의 딸 태옥이 청나라 사신 일당에 의해 공녀로 잡혀가게 된다. 딸이 위험해진 것을 알게 된 태율은 그동안 놓았던 검을 다시 들고 악당들을 추격하기 시작한다. 액션, 특히 검술 액션의 화려함에 집중한 영화로, 장혁과 다른 배우들의 액션 스타일을 비교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

감독 최재훈
출연 장혁, 김현수, 조 타슬림
등급 15세 관람가
개봉 9월 23일



해수의 아이

한국과 일본에서 영화화된 '리틀 포레스트'의 작가인 이가라시 다이스케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다. 해안가 마을에 사는 사춘기 소녀 루카가, 듀공 무리에 의해 키워졌다는 형제 소라와 우미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 인간·생명 그리고 온 우주의 탄생이라는 거창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전달하려는 이야기의 거대함에 비해 그 전개 과정이 매우 불친절해 원작을 보지 않은 관객들은 중반부까지 영화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시간대별로 색깔이 바뀌고 빛나는 바다를 표현한 화면이 압권이다.

감독 와타나베 아유무
출연 아시다 마나, 이시바시 히이로, 우라카미 세이슈
등급 전체관람가
개봉 9월 30일



다시 만난 날들

전문 배우가 아닌 뮤지션들이 주연을 맡은 음악 영화다. 무명의 싱어송라이터 태일은 자신의 앨범을 내고 싶어하지만 현실은 인디밴드 세션에 불과하다. 무작정 고향으로 내려간 태일은 그곳에서 과거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하던 밴드 시절 멤버 지원과 지원이 가르치는 중학생 밴드를 만난다. 아이들과 영감을 주고받은 태일은 지원의 도움으로 미완으로 남겨뒀던 노래를 완성하게 된다.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출신으로, JTBC '슈퍼밴드'에 출연한 홍이삭이 태일을, 기타리스트 장하은이 지원을 연기했다.

감독 심찬양
출연 홍이삭, 장하은
등급 12세 관람가
개봉 9월 24일



밥정

'방랑식객' 임지호 셰프가 생이별한 친어머니, 가슴으로 기르신 양어머니, 긴 시간 인연을 맺은 길 위의 어머니를 그리며 인생의 참맛을 찾아 나선 10년의 여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다. 모든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의 진솔한 삶의 태도와 요리 철학,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등이 담겨있다. 영화 속 등장하는 모든 음식은 영혼의 허기까지 채운다. 당초 지난 3월 개봉 예정이었으나 개봉이 연기돼 마침내 10월 관객에게 선보인다.

감독 박혜령
출연 임지호
등급 전체관람가
개봉 10월 7일



방탄소년단, 아이하트라디오 페스티벌 2020

미국 음악 시장 휩쓴 일곱 소년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영어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정상을 밟았다. 한국 대중음악 사상 최초다. 이 기록도 놀라운데, 발매 2주 차에도 정상을 지켰다. 3주 차에는 이보다 한 단계 하락한 2위를 했고, 4주 차에도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공전의 히트곡인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정복하지 못한 핫 100에 방탄소년단이 깃발을 꽂으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공고한 벽 '핫 100', 영어 디스코 팝으로 허물다

인기곡 순위인 '핫 100'은 주류 팝 음악의 인기 흐름을 보여주는 빌보드에서도 핵심적인 차트로 꼽힌다. 핫 100은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로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순위를 낸다. 빌보드의 메인 차트는 핫 100과 함께 앨범 순위를 집계하는 '빌보드 200'이 있지만, 이중 노래의 대중적 인기를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핫 100이라는 평가다. 발매 첫 주차에 핫 100 1위로 진

입한 곡은 빌보드 역사를 통틀어 봐도 42곡에 불과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2주 차에도 1위를 유지한 곡은 단 스무곡에 불과하다. 방탄소년단은 북미 시장에서 공고한 팬덤을 쌓았지만 '대중성' 면에서는 취약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다이너마이트'는 전체 가사가 영어로 이루어진 점, 쉽게 흥얼거릴 수 있는 디스코 팝이라는 점 때문에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다이너마이트'는 영어 곡이라는 이점이 작용하며 일반 대중에게 노출되는 라디오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자주 방송됐다.

빌보드 필진은 '다이너마이트'가 방탄소년단 팬덤을 넘어 미국의 일반 대중에게도 스며들 히트곡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제이슨 립슈츠는 "귀에 감기는 노래와 강력한 변화"라며 "아미(방탄소년단 팬)의 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올해가 갈 때까지 흥얼거릴 것"이라고 밝혔다. 팝스타 저스틴 비버는 "역사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BTS"라며 방탄소년단을 극찬했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싱글 1위로, 그래미상 후보로 가는 길에 탄력

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들은 북미 시장 진출 이후 그래미 후보로 여러 차례 거론되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노미네이트된 적은 없다. 그래미는 비백인, 비영어권, 힙합 등에 배타적인 것으로 유명한 음악 시상식이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방탄소년단이 한 분야에서라도 후보에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베스트 팝 듀오/그룹' 부문이다. 포브스는 지난 2월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정규 4집이 "올해 가장 잘 팔리고 큰 성공을 거둔 앨범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하며 이 분야 노미네이트 가능성을 점쳤다. 방탄소년단은 그동안 여러 차례 그래미 시상식 단독 무대와 후보 선정, 나아가 수상까지를 마지막 꿈이라고 말해온 바 있다.

보아부터 방탄소년단까지, K팝 가수 빌보드 도전사

빌보드 메인 차트의 문을 연 것은 '아시아의 별' 보아다. 2009년 미국 정규앨범을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27위에 올랐다. 이후 2012년 소녀시대 유닛(소그룹) 태티서, 빅뱅, 지드래곤 등과 2014~2015년 투애니원, 소녀시대, 태양, 엑소 등이 이 차트에 진입했지만 주로 100위권대에 머물렀다. 지난해부터는 슈퍼엠(1위), 몬스타엑스(5위), NCT127(5위), 블랙핑크(24위) 등이 빌보드 200 상위



방탄소년단, 아이하트라디오 페스티벌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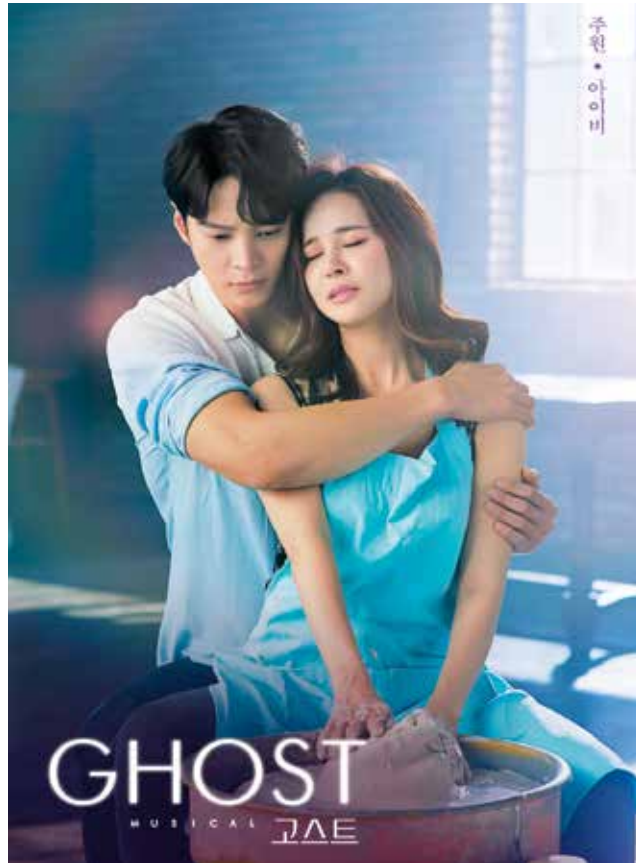
권에 이름을 올렸다.

방탄소년단은 2015년 '화양연화 파트2'(171위)로 빌보드 200에 처음 입성한 뒤 이 차트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이후 발표한 3개 앨범도 모두 차트 안에 들었으며, 2017년에는 '러브 유어셀프 승 허'(7위)로 10위권 내에 진입했다. 이듬해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로 국내 가수 중 최초로 1위를 안았다. 같은 해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와 지난해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 올해 2월 '맵 오브 더 솔: 7'까지 앨범 네 개를 잇달아 정상에 올리는 기록을 썼다. 반면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의 벽은 국내 가수 중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극소수만이 뚫었다. 핫 100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팀은 원더걸스다. 이들은 2009년 '노바디'로 76위를 차지했다. 2012년 세계적으로 히트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이 차트에서 7주 연속 2위를 기록했으나, 끝내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싸이는 이듬해 '젬름 댄'으로 5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은 2017년 'DNA'(67위)로 핫 100 문을 처음 두드렸다. 2018년 '페이크 러브'가 10위에 오르며 처음으로 10위권 성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작은 것들을 위한 시'(8위)에 이어 올해 2월에는 '온'(4위)으로 '톱 5' 안에 들었다. 최근에는 블랙핑크가 이 차트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킬 디스 러브'(41위)로 국내 걸그룹 최초로 핫 100을 밟은 뒤 올해 발표한 두 곡인 '사워 캔디'와 '하우 유 라이크 댓'을 각각 33위에 올렸다.



방탄소년단, Dynamite, 티저



30년 전 추억을 다시 한번... 뮤지컬 '고스트'

액션 배우 브루스 윌리스의 부인으로도 잘 알려진 데미 무어는 1980~1990년대 할리우드 영화계의 여성 아이콘 중 한명이었다. 특히 그가 주연으로 출연한 '사랑과 영혼'(Ghost)은 한국 영화와 외화를 통틀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 국내 영화계에 한 획을 그었다. 1960년대에 발표됐지만, 이 영화에 삽입되며 차트를 역주행한 라이치스 브라더스의 '언체인드 멜로디'(Unchained Melody)는 '국민송'이 됐고, 귀신이 되어서도 부인을 끝까지 지키는 주인공 패트릭 스웨이지도 '순정남'으로 인기가 치솟았다. 영화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랑하는 연인과 영원히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된 한 남자가 죽어서도 연인의 곁을 떠나지 못하다가 위험에 빠진 연인을 구해주고 비로소 이별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뮤지컬 '고스트'는 영화 '사랑과 영혼'을 무대화한 작품이다. 다소 뻔하고 20년도 더 된 이야기가 관객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뮤지컬 '고스트'는 지난 2013년 국내에서 초연해 7개월간 통런하며 23만명의 관객을 끌어모았다.

원래 '고스트'는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2011년 초연됐으며 이후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네덜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등에서 공연됐다. 영화에서 소개됐던 '언체인드 멜로디' 등 귀에 익은 노래가 여러 곳에서 나오며 추억을 소환한다. 이번 재연에서는 국내 초연 때 열연했던 배우들이 다시 참여한다. 원년 멤버인 주원·김우형이 귀신이 되어서도 사랑하는 여인을 보호하는 샘 역을 다시 맡았고, 샘의 연인 몰리 역은 아이비와 박지연이 더블 캐스팅됐다. 최정원이 오다 메 역으로 돌아온다.

공연일정(장소) 10월 6일~2021년 3월 14일(신도림동 디큐브아트센터)
관람료 6만~14만원
☎ 1544-1555

뮤지컬 '듀엣'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듀엣'이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에서 상연된다. 지난 2007년 초연 후 13년 만의 재연이다. 인기 작곡가 버논과 신인 작사가 소냐가 만나 밀고 당기며 사랑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코믹하게 담았다. 장면 곳곳에 극본을 쓴 닐 사이먼의 재치와 유머가 드러난다. 등장인물은 소냐와 버논 두 명뿐이지만 6명의 남녀 코러스가 이들의 분신으로 나와 두 사람의 심리상태를 코믹하게 표현했다. 버논 역은 박건형과 박영수가, 소냐 역은 문진아와 제이민이 맡아 연기한다. 마빈 힘래쉬가 음악을 담당했다.

공연일정(장소) 10월 23일~2021년 1월 31일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
관람료 3만~7만원
☎ 1544-1555



몰리에르의 희극 '스카팜'

재벌가인 아르강뜨와 제롱뜨는 자식들의 정략결혼을 약속하고 여행을 떠난다. 그 사이 둘의 자식들은 각자 신분도 모르는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 부모의 정략결혼 약속을 알게 된 두 자식은 제롱뜨의 하인 스카팜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다. 그렇게 젊은이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스카팜의 계략이 시작되는데... 몰리에르의 원작을 한국 신체극의 대가 임도완이 직접 각색하고 연출한 작품이다. 지난해 초연해 개막과 동시에 입소문을 타고 연일 매진을 기록했다. 평단의 호평도 이어져 한국연극 선정 '2019 공연 베스트 7'에 뽑혔다. 짓궂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의 하인 스카팜과 어리숙한 주변 인물들을 통해 지배계층의 탐욕과 편견을 조롱한다.

공연일정(장소) 10월 14일~11월 15일(명동예술극장)
관람료 2만~5만원
☎ 1644-2003



발레리나 김주원의 '사군자_생의 계절'

발레리나 김주원이 출연자 겸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로 참여하는 작품이 정동극장 무대에 오른다. 정동극장은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정동극장 개관 25주년 기념작 '김주원의 사군자_생의 계절'을 공연한다.

15년 동안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로 활동한 김주원은 그동안 아티스트로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발레 '마그리트와 아르망'(2013), '탱고발레, Minutes : Su tiempo 그녀의 시간'(2019)을 통해 프로듀싱 역량을 보여줬다.

특히 발레와 한국무용이 결합한 공연, 한국적 사상을 담아낸 발레 공연 등을 통해 '한국적 색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드러냈는데, 김주원의 그런 관심이 이번 작품에서 그대로 묻어난다.

이 작품은 매화·난초·국화·대나무 사군자(四君子)를 모티브로 했다. 작품은 봄(梅)·여름(蘭)·가을(菊)·겨울(竹) 4장에 걸친 개별적 이야기들의 무의식적 연결을 통해 '인연'의 반복과 연결을 독특하게 구조화했다. 장마다 두 존재의 '인연 이야기'가 펼쳐지고, 무대에선 윤희를 거듭하는 두 존재의 만남과 이별이 그려진다. 그렇게 개별

적으로 펼쳐지던 네 가지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인연 이야기'로 만난다.

'김주원의 사군자_생의 계절'은 다른 차원의 공간감을 주고, '인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구현하기 위해 홀로그램기법도 활용한다. 또한 세 사람이 한 명처럼 움직이고, 언어를 배경으로 춤을 추는 장면 등이 연출된다. 특히 배우들의 대사에 맞추어 무용수가 움직이는 부분은 여러 인연을 소개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기능한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정구호가 예술감독을 맡고 정재일 음악감독, 박소영 연출, 김성훈 안무가 등이 참여한다. 김주원이 생각하는 '인연'에 대한 상념과 고찰을 바탕으로 지이선 작가가 대본을 썼다. 배우 박해수와 윤나무, 국립발레단 출신 발레리노 김현웅·윤전일과 신예 발레리노 김석주가 출연한다.

공연일정(장소) 10월 22일~11월 8일(정동극장)
관람료 전석 7만원
☎ 02-751-1500

서울국제음악제 10월 개막...베토벤 조명

2020 서울국제음악제가 '위대한 작곡가들'을 주제로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 등에서 열린다.

올해 음악제의 주인공은 탄생 250주년을 맞은 베토벤이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와 실내악, 협주곡, 미사곡 등이 관객들과 만난다. 음악제 전야제 격인 20일 공연에선 블레저목관양상블과 피아니스트 문재원이 슈만 '목관 오중주와 피아노를 위한 육중주' 등을 연주한다. 23일 열리는 개막공연에서는 지난 3월 별세한 펜데레츠키의 '샤콘느'와 베토벤의 바이올린협주곡 등이 연주된다.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과 코리아챔버오케스트라가 연주자로 나선다. 30일은 베토벤의 '장엄미사'가 연주되며 11월 1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리는 폐막공연에선 베토벤 '육중주', 김택수 '바이올린과 피아노 소나타' 등이 관객들과 만난다.

공연일정(장소) 10월 20일~11월 1일(롯데콘서트홀 등)
관람료 1만~12만원
☎ 1544-1555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 시향과 협연

에스더 유는 2018년부터 1년간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주 아티스트로 활동한 바이올리니스트다. 이력은 화려하다. 미국에서 태어나 6살 때부터 유럽에서 자란 에스더 유는 4살 때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해 8살 때 콘체르토 데뷔 무대를 가졌으며 2010년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한 데 이어 2012년 퀴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수상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BBC 라디오 채널 3의 뉴 제너레이션 아티스트로 선정되어 BBC 프롬스 무대에 데뷔했으며 지난 시즌에는 뉴욕 링컨 센터에 올랐다. 도이체 그라모폰 레이블에서 글라주노프와 시벨리우스 협주곡 데뷔 앨범에 이어,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의 지휘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녹음한 차이콥스키의 협주곡 음반을 출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목받는 에스더 유가 오는 10월 16일 예술의전당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협연자로 나서며 국내 관객들과 만난다. 이미 음반으로 선보인 글라주노프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준다. 지휘는 서울시향 부지휘자 월슨 응이 맡는다. 최근 말러 콩쿠르 3위를 차지한 월슨 응은 이 곡 외에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번도 선보인다.

공연일정(장소) 10월 16일(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1만~7만원
☎ 1588-1210



작가 김탁환은 거친 세상 속에 놓인 다양한 인간 군상, 사회와 인간이 만들어온 문제를 천착하며 소설을 써왔다. 그러던 중 더 빨리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신 또한 글 쓰는 기계가 돼 있음을 자각한다. 작업실을 벗어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질문을 품고서 지방 곳곳의 마을로 향한 그는 농부과학자인 이동현 씨를 만나 두 번째 인생 발아의 시간을 함께했다. 이번 신간은 이런 만남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와 회생의 길을 담은 책이다.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시 씨앗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빚대어 두 사람의 삶의 궤적을 차례로 담아냈다. 농부 이씨가 땅과 동식물로부터 체득한 지혜는 많은 깨달음을 안겨준다.

김탁환 지음/ 해냄출판사 펴냄/ 328쪽/ 1만6천800원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 그토록 흔했던 이름 '순자'. 이 소설은 그 많은 '순자들'에 바치는 헌사로 받아들여진다. 작가는 “순자가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질문에서 이 소설을 시작했다고 한다. 파묘(破墓), '하고 싶은 말', '무명(無名)', '다가오는 것들'로 이어지는 네 편의 소설은 어린 시절 '순자'로 불렸던 1946년생 이순일과 그의 두 딸 한영진 한세진의 이야기가 큰 줄기를 이루며 이어진다. 고단한 현대사를 온몸으로 부딪치며 살아낸 그 많던 '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기의 한국 사회를 돌아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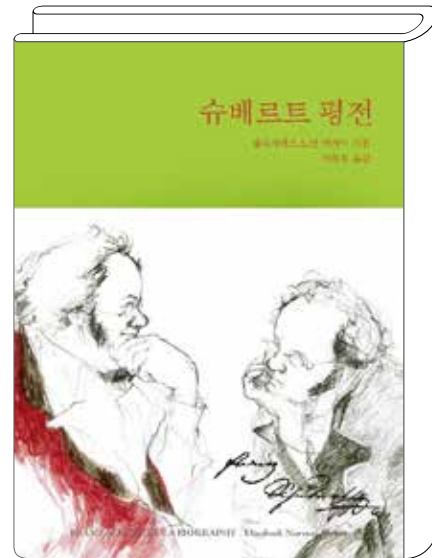


황정은 지음/ 창비 펴냄/ 188쪽/ 1만4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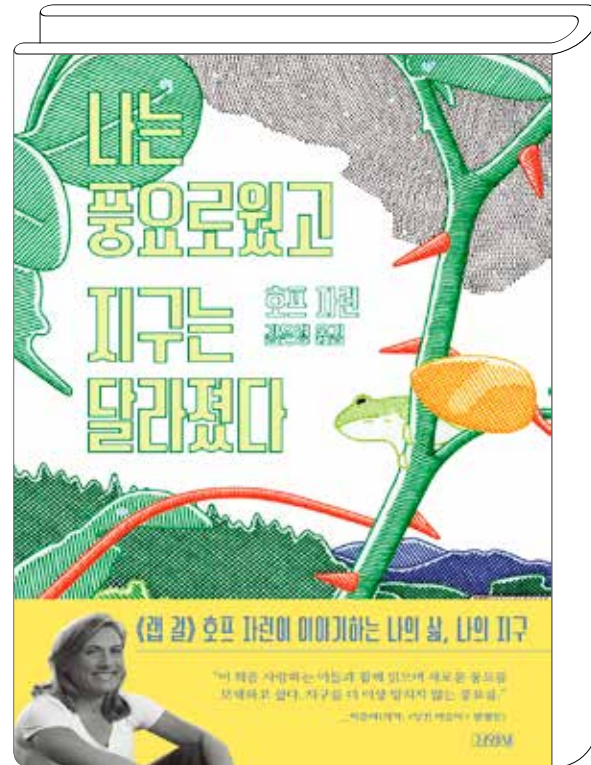
손원평 지음/ 은행나무 펴냄/ 268쪽/ 1만3천500원

데뷔작 '아몬드' 한 편으로 일약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설가로 급부상한 손원평의 신작. 두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자가 서로 엇갈리는 만남과 이별 속에서 다양한 빛깔로 흩어지는 마음의 편린을 포착한 이야기다. 십사리 사랑에 접근하지 못하는 남자 도원, 상처와 회한을 견디고 살아내는 여자 재인, 아파도 사랑을 멈추지 못하는 여자 예진, 마음을 꼭 닫아버린 남자 호계가 변화해가는 모습을 서정적이면서 느린 문체로 그려낸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며 성장해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떤 모양의 나이트를 남기는지 곱씹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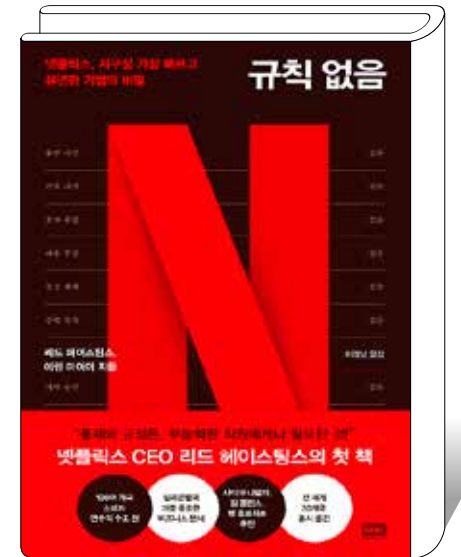
1996년 영국에서 출간된 이 책은 영미권에서 나온 슈베르트에 관한 전기적 연구들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저작이다. 슈베르트 자신이 남긴 편지, 일기와 같은 기록은 물론 당대에 그와 교류했던 많은 인물이 남긴 자료와 공적, 사적 기록물 등을 토대로 그의 생을 '있는 그대로' 담았다. 특히 그가 왕성하게 작품활동을 하고 친구들과도 활발히 교류한 마지막 몇 년에 관해서는 일거수일투족을 곁에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상세히 기술한다. 많은 기록과 증언을 충실하게 검증했을 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쉽게 읽히는 유연한 스토리텔링까지 더해져 그 가치를 더한다. 31년이란 짧은 시간을 지상에서 보낸 슈베르트의 삶을 정통적인 연대기 방식으로 보여주면서도 따사로운 시선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엘리자베스 노먼 맥케이 지음/ 이석호 옮김/ 풍월당 펴냄/ 4만8천원/ 712쪽



호프 자런 지음/ 김은령 옮김/ 김영사 펴냄/ 276쪽/ 1만5천500원

먹고 소비하는 우리의 삶은 지난 50년간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책은 여성 지구과학자가 풀어내는 자신의 삶과 지구, 풍요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위협과 두려움에 관한 책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누려왔고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에 관한 이야기이다. 원제 'The Story of More'가 암시하듯 더 많이 빨리 소비하는 생활이 만들어낸 심각한 문제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 삶, 나아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풍요로운 삶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떻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지구 환경의 지속성을 망치지 않을 수 있을까? 저자는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리드 헤이스팅스, 에린 마이어 지음/ 이경남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468쪽/ 2만5천원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켜 '포스트 잡스'로 불리는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는 넷플릭스의 성공 비결로 '자유와 책임 문화'를 꼽는다. 넷플릭스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시간이 없다. 휴가와 경비에 관한 규정, 결재 승인 절차도 없다. 말단 직원도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해,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다. 규칙이 없다는 게 규칙인 셈. 이 책은 넷플릭스의 경영 방식과 기업문화에 관해 인시아드 경영대 교수 에린 마이어와 넷플릭스 CEO가 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넷플릭스가 어떻게 상식을 뒤엎는 파격적인 행보로 연간 수조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영산강변 수놓은 담양 대나무 군락지, 천연기념물 된다

글 임동근 기자



[문화재청 제공]

영산강변을 청량하게 수놓은 전남 담양의 대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이 된다. 문화재청은 대전면 태목리에 있는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평균 높이 18m, 평균 지름 2~12cm의 왕대와 솜대가 같이 분포하는 이 대나무 군락은 강변을 따라 길게 형성된 퇴적층에 자연적으로 조성돼 있다. 이곳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8호), 원앙(제327호), 수달(제330호)과 함께 달뿌리풀, 물억새 등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이기도 하다.

전국 대나무 분포 면적의 약 34%를 차지하는 담양에서는 예부터 부채류, 대바

구니 등 다양한 죽제품을 생산해왔다. 1809년 편찬된 생활 지침서인 ‘규합총서’에는 담양의 채죽상자(대나무로 짠 상자)와 세대삿갓(비구니용 삿갓)이 소개되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영산강변과 어우러져 경관이 뛰어나고, 대나무가 식용, 생활 도구 등 전통유용식물자원으로서 우리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대나무 군락지로서 처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흥 인공서핑장 ‘웨이브 파크’ 10월 8일 정식 개장

글 김광호 기자



[시흥시 제공]

경기 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 내 거북섬에 조성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 ‘웨이브 파크’가 10월 8일 정식 개장한다.

시흥시와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대원플러스그룹 등이 16만6천여㎡ 부지에 5천630억원을 투자해 조성된 웨이브파크는 인공 서핑장과 파도 풀, 수상레저 체험장 등으로 이뤄졌다.

인공 서핑장은 길이 220m, 폭 240m 규모로, 8초에 1회씩 최고 높이 2.4m의 파도가 치며, 시간당 최대 15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인공 서핑장 옆 길이 210m, 폭 110m의 파도 풀에서도 다양하게 파도를 즐길 수 있고, 수상레저 체험장에서는 카누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민간 업체가 사업비를 대부분 부담한 웨이브 파크는 완공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업체가 20년간 운영한다.

웨이브 파크 입장료는 성인 기준 1인당 4만원으로 잠정 결정됐으며, 서핑장을 이용하려면 1인당 4만원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국토 최서남단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명승 지정

글 강종훈 기자

우리나라 국토 최서남단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가 국가지정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를 명승 제117호로 지정했다.

섬 전체가 기암괴석으로 이뤄진 신안 가거도는 국토 최서남단이라는 지리적인 상징성이 있고, 뛰어난 식생 분포를 가진 섬이다. 수많은 철새가 봄과 가을에 서해를 건너 이동하면서 중간기착지로 이용하며, 넓게 펼쳐진 후박나무 군락과 다양한 종류의 희귀식물들이 있다.

가거도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고문헌과 ‘여지도서’, ‘해동지도’, ‘제주삼현도’ 등 고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시대 지명은 가가도였다. 가거도라는 지명은 ‘지도군 읍지’에서 처음 등장해 오늘에 이르렀다.

통일신라 시대부터 중국과의 무역을 위한 중간기항지로 활용됐으며, 전남기념물 제130호 가거도 패총, 전남무형문화재 제22호 ‘가거도 멀치잡이 노래’ 등이 남아있는 등 역사·문화자원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다.

가거도 북서쪽에 자리한 섬등반도는 섬 동쪽으로 뻗어 내린 반도형 지형으로, 기암절벽으로 이뤄진 암봉과 병풍처럼 펼쳐진 해안 낭떠러지가 장관을 이룬다. 낙조 경관이 아름다운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 최서남단의 가거도는 국토의 동쪽 끝인 독도(천연기념물 제336호), 서해 최북단 백령도(명승 제8호, 천연기념물 제391호)와 최남단 마라도(천연기념물 제423호)와 함께 우리 국토를 감싸는 ‘끝섬’ 중 하나다.



섬등반도

[문화재청 제공]



가거도

‘대통령 휴양지’ 거제 저도 방문 기회 많아졌다

글 이정훈 기자



대통령 휴양지인 경남 거제시의 섬 저도 방문 기회가 더 많아졌다. 거제시는 10월부터 저도 입도 인원과 입도 가능 기간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저도는 섬 전체에 해송과 동백이 자생하는 면적 43만여㎡의 작은 섬이다. 해군 시설이 있으면서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로 지정된 후 섬 주민들이 떠나고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다. “저도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해 9월 17일부터 일반에

개방되고 있다.

현재 저도를 오가는 유람선은 저도 내 군사 부두를 사용한다. 유람선 전용 부두가 준공하는 10월부터 하루 1천200명인 입도 인원이 1천800명으로 늘어난다. 또 저도 개방 요일을 주5일(월·목 제외)에서 주6일(수요일 제외)로 늘리고 동·하계 해군 정비 기간을 줄여 관광객들을 받을 예정이다.